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박창현¹⁾ 김근진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는 것이다. 조사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변이계수와 내용타당성 비율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진흥원의 발전방안에서는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기능강화 등이, 교원연수의 경우에는 현장중심 등이 우선순위였다.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존의 체험 제공방식의 변화, 교육복지의 경우에도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이 우선순위였다. 둘째, 정책차순위를 정리하면, 부모와 지역사회, 서울시민 중심 정책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정책후순위는 돌봄강화, 자체평가 등이 제안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아교육진흥원,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정책우선순위

I. 서론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교육체제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치원 교육의 변화와 누리과정 개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인권 교육, 온종일 돌봄체제,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인권 강화, 부모참여와 공

* 본 논문은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박창현·김근진·최윤경, 2018) 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유치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유아교육진흥원들 중,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2008년에 설립되어 지난 10년간 유치원 공교육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성장해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복지 선진화 실현을 목적으로 공·사립유치원의 유아·교원·학부모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지닌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유아교육법 제 6조 1항에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공교육 체제 확립과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기반 조성,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및 교수·학습 방법 일반화, 유아교육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평가 등의 유아교육 진흥,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방과후 과정 활성화 및 문화격차 최소화,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유아 체험교육 제공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8). 즉,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원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이용대상자 수용률은 2018년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유치원 교원 77.6%로 서울시 유치원 전체 교원 중, 약 7천 명의 교원들이 다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21%로 서울시 유치원 이용 부모들 중, 약 8만 8천 명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체험을 이용하는 유치원 비율은 전체 서울시 유치원 중 37.9%이며, 체험 유아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면 14.7%였다(박창현·김근진·최윤경, 2018). 2017년 유아교육 연수지원 및 학부모연수 현황, 체험교육 운영 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이용대상자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서울시 내 진흥원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7). 이러한 결과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본원 내지는 본원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며, 진흥원으로서의 접근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아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꾸준히 고찰하였다. 이에 2011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양적확충을 통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증설 및 충분한 인력배치를(김은영·최은영·조혜주, 2011), 2012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질적 검토를 위해 운영 현황 및 지원요구에 대한 현장 의견이 수렴되었다(권미경·김문정, 2012a; 2012b). 권미경과 김문정의 연구(2012A; 2012b)에서는 진흥원들이 전문 인력의 부족, 지위의 불안정,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확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운영지원을 위한 조직업무의 표준화, 유아교육진흥원 간 협력 강화, 운영예산의 확보, 교직원 확충, 유아체험교육원의 신규 설치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2013년에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 정책에 대한 내용 적합성, 실현 가능성, 필요도 등이 폭넓게 평가되었다(최은영·김정숙·송신영, 2013). 2014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향후 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및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끝으로 2015년에는 유아교육지원체계 내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한편,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 대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교사 및 부모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 유아 대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수정(2015)은 전국 15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현안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세문(2015)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관련 교육 연구 사업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진흥원이 가장 많은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강민지(2017) 역시 정부 개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세부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구체적인 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과 더불어 교사 교육 핵심기관으로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맹문희(2011)와 이연승과 강민정, 조혜진(2012)은 각각 유아음악교육과 R-러닝에 대한 현직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강좌 및 연수 자료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문복진(2014), 김규수와 박미정(2016), 권연정(2016)은 그들이 개발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보급기관으로써 유아교육진흥원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김성숙과 임부연(2014)은 신체화된 이야기나누기 수업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끝으로 교사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지원 요구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안혜진(2012)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해정과 이인희, 이지혜(2015)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을 탐색하고, 설립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김태인과 조형숙(2010), 김태인과 김혜원(2010)은 유아교육기관 내 상담 자원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해줄 기관으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을 꼽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1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알맞은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돌아보고, 시대에 알맞은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가 요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진흥원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전문가가 요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순위(정책우선순위, 차순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성과분석과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구성은 각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의 원장과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를 추천받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들과 선정기준을 고려하였다. 선정 기준은 연구주제 관련 학술연구 경험자,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 한정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 명단을 구성하고, 본인의 델파이 참여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참여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된 전문가그룹을 살펴보면, 시도 유

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원장, 장학관(사)의 경우, 서울, 전북, 대구, 대전, 강원, 경남, 광주지역의 교육연구원 및 연구사, 장학관을 포함하였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원장 및 교사의 경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근무를 했거나, 진흥원 업무를 잘 아는 교사를 추천받았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조사 항목에 대한 양적 의견조사이다. 1차 조사 자료는 질적 방법을 활용해 분석한 뒤, 연구진의 이론적 검토 결과를 결합하여 2차 조사의 설문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였으며, 조사방법은 e-mail 조사,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양적 의견 조사이다. 정책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설문이라는 점에서 응답내용을 수차례 정독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고려하여 정책요소를 추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는 21인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개인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성과분석 응답자 특성

	구분	참여자 수	백분율
직책	행정가	8	38.1
	연구자	7	33.3
	실천가	6	28.6
학력	박사	8	38.1
	석사	11	52.4
	학사	2	9.5
전공	유아교육	20	95.2
	영재교육	1	4.8
연령	40대	6	28.6
	50대	13	61.9
	60대 이상	2	9.5
	합계	21	100.0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 중, 교육청과 타 진흥원에 근무하는 행정가가 7명(38.1%),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자가 7명(33.3%), 유치원 교원인 현장 실천가 6명(28.6%)이었다. 전공은 유아교육이 20명(95.2%), 영재교육이 1명(4.8%)이었다. 전공의 경우, 최종학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영재교육을 전공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학력은 석사 졸업자가 11명(52.4%), 박사 졸업자가 8명(38.1%), 학사 졸업자가 2명(9.5%)이었다. 성별은 모두 여자였고, 연령의 경우, 50대가 13명(61.9%), 40대가 6명(28.6%), 60대 이상이 2명이었다.

2. 조사내용

2차 조사를 위한 의견목록은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 발전방안을 비롯하여 사업 및 정책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목록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인 발전방안과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및 정책 발전방안(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유치원 평가, 유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 교육복지)을 중심으로 총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위 세부항목은 총 80개로 구성하였다.

〈표 2〉 전문가 델파이 의견조사지 문항 (2차)

영역	항목	항목 수
전반적 발전방안	①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교원연수는 타기관으로 이관	17
	② 유아놀이, 소통기능이 강화된 '유아교육지원센터(가칭)'로 개편	
	③ 유아체험은 마을중심의 실제체험 강조, 정보연결 문지기 역할 강화	
	④ 기존의 체험원은 종합 시설로 개편	
	⑤ 지역별 유치원 현장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	
	⑥ 지역별, 권역별 진흥원 추가 설립 확대	
	⑦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적 특색 강화	
	⑧ 안정적 예산 확보	
	⑨ 유아교육진흥원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강화	
	⑩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법적 근거 마련	
	⑪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⑫ 관료주의 조직 문화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⑬ 진흥원 조직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확대	
	⑭ 인력 확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⑮ 유-보 통합을 고려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⑯ 유치원 임시돌봄기능 추가	
	⑰ 연구 및 연수 업무의 분담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제공	⑱ 서울 시민대상 유아교육 정보 제공 주력	6
	⑲ 오픈 플랫폼 마련	
	⑳ 마을 공동체 인력, 서비스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㉑ 배너 연결을 통해 온라인 접근성 확대	
	㉒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성 주력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㉓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필요	7
	㉔ 우수 교재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 확대 및 보급 문제 개선	
	㉕ 해외우수 프로그램과 연계방안 모색 및 안내	
	㉖ 현장 교사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㉗ 현장에서 만들어가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교구 개발	
	㉘ 교재교구 대여 택배 및 배달 서비스 지원	
	㉙ 멀티미디어 및 ICT를 활용한 교재교구 제작 지원 인력 확충	
	㉚ 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교육자료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영역	항목	항목 수
유치원 교원연수	㉑ 지역별 현직교사의 수요조사기반 교원연수 제공	14
	㉒ 교사의 학급중심 실천 연구과정 지원 및 공유	
	㉓ 온라인, 사이버 연수 및 제고 및 확대	
	㉔ 보조인력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㉕ 찾아가는 교원연수 강화	
	㉖ 교육부 지원 원격 연수원 지정	
	㉗ 수업사례 중심의 현장 토의형 연수 강화	
	㉘ 생애주기별연수 횟수 확대	
	㉙ 인권, 성폭력, 아동학대, 청렴 등 필수 연대 확대	
	㉚ 교육지원청, 구청, 주민센터, 거점 유치원과 협력하여 지역별 교원연수 실시	
	㉛ 교원연수의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강사인력풀 확보	
	㉜ 전문성 수준에 따른 연수유형의 다양화	
	㉝ 교원이 즐길 수 있는 인문학적, 예술적 감성함양 연수 확대	
	㉞ 직무시간, 평일, 저녁, 토요일 등 다양한 연수시간대 구성	
유치원 평가	㉟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평가업무이관	4
	㊱ 평가 부적합 유치원은 컨설팅, 우수 유치원은 역량 강화	
	㊲ 현장평가 지양, 서면, 자체평가보고 강화	
	㊳ 유치원 평가를 위한 교원, 평가위원 사전연수 강화	
유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㊴ 노후된 체험영역 리모델링 및 예산 확대	14
	㊵ 마을의 특색이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㊶ 흥미영역 위주가 아닌 창의적인 놀이 부스 확대	
	㊷ 다양한 공연관람 및 예술문화체험 확대	
	㊸ 실외놀이 체험 놀이터 확대	
	㊹ 타진회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㊺ 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㊻ 자원봉사자 인력 확충 확대	
	㊼ 가정과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 마련	
	㊽ 교원 요구조사를 반영한 체험활동 종류 확대	
	㊾ 과학실험 및 ICT 기술 보강	
	㊿ 유아체험내용 주기적 교체 및 신설 운영 강조	
	㊱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확대	
	㊲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계하도록 MOU 체결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	㊳ 자녀의 행복을 위한 학부모 콘서트 개최	12
	㊴ 유치원과 지역청이 담당하기 어려운 유아부모 상담지원	
	㊵ 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원 강화	
	㊶ 대국민 홍보 전략 강화	
	㊷ 자녀발달 시기에 맞춘 연수의 세분화	
	㊸ 부모의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연수 확대	
	㊹ 소통 경로 및 시간대 다양화	
	㊺ 유치원 입학예정 부모 대상 유치원 이해, 학부모 에티켓 연수 개발	
	㊻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지원 프로그램 운영	
	㊼ 유치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㊽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및 상담지원서비스	
	㊾ 다양한 가족을 위한 연수 및 지원 기능 강화	

영역	항목	항목 수
교육복지	㉟ 사회적 배려대상 가족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6
	㊱ 사회적 배려대상 부모교육 상담실 운영	
	㊲ 사회적 배려대상 유아와 가족들의 지역 문화시설 이용권 제공	
	㊳ 영역별 체험교육시 사회적 배려자 고정비율 적용	
	㊴ 장애유아를 위한 환경구비 강화	
	㊵ 다문화 가족 상담지원 확대	

3. 분석방법

1차 조사 결과 분석은 질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방형 설문이라는 점에서 응답내용을 수차례 정독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고려하여 정책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의견의 10%를 다른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류의 일치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서 동의비율(agreement ratio)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연구진의 1차 조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차 조사는 양적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량으로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성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사용하였다. CVR은 델파이 조사 문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량이다. CVR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이경진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21명이었으므로, CVR의 판단기준을 표본 수에 따라 제시한 Lawshe(1975)의 기준에 따라 0.441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위 1그룹은 정책우선순위로, 정책순위 2그룹은 정책차순위 또는 후순위로 파악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 발전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 발전방안’에는 17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은 응답척도에서 5점에 응답한 사례수를 분석하여 도출한 CVR 통과 항목들로, 이를 평균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우선순위 항목은 발전

방안 10(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법적근거마련)($M=4.90$). 발전방안 8(안정적 예산확보)($M=4.86$), 발전방안 9(유아교육진흥원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기능 강화)($M=4.76$), 발전방안 5(지역별 유치원 현장지원기능을 보다 강화)($M=4.71$), 발전방안 14(인력확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M=4.71$), 발전방안 6(지역별, 권역별 진흥원(또는 분원) 추가 설립 확대)($M=4.67$), 발전방안 13(진흥원 조직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확대($M=4.62$)이다.

정책 2순위 그룹은 응답척도에서 4점과 5점에 응답한 사례수를 분석하여 도출한 CVR 통과 항목으로 이를 평균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차순위 항목은 발전방안 7(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적 특색 강화)($M=4.38$), 발전방안 12(공무원의 관료주의 조직 문화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M=4.05$), 발전방안 17(연구 및 연구 업무 분담)($M=4.05$), 발전방안 11(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M=4.00$), 발전방안 2(유아놀이, 학부모·지역사회 소통기능이 강화된 지역별 ‘(가칭)유아교육지원센터’로 개편)($M=3.95$), 발전방안 15(추후 유·보 통합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기능 강화)($M=3.95$)이다.

정책후순위 항목은 발전방안 3(유아체험은 마을중심의 실제체험 강조, 정보연결 문지기 역할 강화)($M=3.28$), 발전방안 1(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교원연수는 타기관으로 이관)($M=3.24$), 발전방안 4(기존의 체험원은 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키즈카페, 가족 프로그램이 통합된 종합시설로 개편)($M=3.19$), 발전방안 16(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원 입시돌봄기능 추가)($M=2.67$)이다.

〈표 3〉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 발전방안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1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교원연수는 타기관으로 이관	3.24	1.34	0.26	-0.68	41.32	
2	유아놀이, 소통기능이 강화된 ‘유아교육지원센터(가칭)’	3.95	1.02	0.58	-0.26	25.90	2
3	유아체험은 마을중심의 실제체험 강조, 정보연결 문지기 역할 강화	3.48	1.08	0.05	-0.58	31.01	
4	기존의 체험원은 종합시설로 개편	3.19	1.25	0.05	-0.68	39.17	
5	지역별 유치원 현장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	4.71	0.46	1.21	0.58	9.82	1
6	지역별, 권역별 진흥원 추가 설립 확대	4.67	0.58	1.11	0.58	12.37	1
7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적 특색 강화	4.38	0.67	1.00	0.05	15.27	2
8	안정적 예산 확보	4.86	0.48	1.11	1.00	9.84	1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9	유아교육진흥원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기능 강화	4.76	0.54	1.11	0.79	11.32	1
10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법적 근거 마련	4.90	0.30	1.21	1.00	6.13	1
11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4.00	1.22	0.47	0.16	30.62	2
12	공무원의 관료주의 조직 문화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4.05	1.02	0.68	-0.16	25.29	2
13	진흥원 조직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확대	4.62	0.59	1.11	0.47	12.76	1
14	인력 확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4.71	0.64	1.00	0.79	13.65	1
15	추후 유-보 통합을 고려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3.95	0.97	0.68	-0.37	24.63	2
16	유치원 임시돌봄기능 추가	2.67	1.32	-0.47	-0.79	49.37	
17	연구 및 연구 업무의 분담	4.05	1.16	0.58	0.05	28.68	2
	평균	4.13	0.86	0.69	0.11	22.77	

2.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에는 6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 2순위 그룹인 정책차순위 항목은 연구 및 정보제공 23(미래세대를 위한 서울 유아교육의 중장기 정책 연구 필요)($M=4.43$), 연구 및 정보제공 20(마을 공동체 인력, 서비스기관 등에 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M=4.33$), 연구 및 정보제공 18(서울 시민대상 유아교육 정보 제공 주력)($M=4.19$), 연구 및 정보제공 19(오픈 플랫폼 마련)($M=4.14$), 연구 및 정보제공 21(배너 연결을 통해 진흥원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 확대)($M=4.10$)이다. 정책후순위 항목은 연구 및 정보제공 22(단위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 정책연구 주력)($M=3.76$)이다.

〈표 4〉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18	서울 시민대상 유아교육 정보 제공 주력	4.19	0.68	0.89	-0.26	16.22	2
19	오픈 플랫폼 마련	4.14	0.79	0.68	-0.16	19.14	2
20	마을 공동체 인력, 서비스기관 등에 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4.33	0.80	1.00	0.05	18.37	2
21	배너 연결을 통해 온라인 접근성 확대	4.10	1.14	0.68	0.05	27.74	2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22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 주력	3.76	1.09	0.37	-0.37	29.00	
23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필요	4.43	0.81	0.79	0.37	18.30	2
	평균	4.16	0.89	0.74	-0.05	21.46	

3.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는 7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인 정책우선순위 항목은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4(우수 교재 및 프로그램의 시중 접근성 확대 및 보급 문제개선)($M=4.67$),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6(현장 교사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M=4.67$),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7(현장에서 만들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교구 개발)($M=4.57$),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30(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교육자료 공유를 위한 웹 사이트 구축)($M=4.48$)이었다. 한편, 정책 2순위 그룹인 정책차순위 항목은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9(멀티미디어 및 ICT를 활용한 교재교구 제작 지원 인력 확충)($M=4.24$),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5(해외우수 프로그램과 서울형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방안 모색 및 안내)($M=3.86$)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후순위 항목은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8(교재교구 대여 택배 및 배달 서비스 지원)($M=3.90$)이다.

〈표 5〉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24	우수 교재 및 프로그램의 접근성 확대 및 보급 문제 개선	4.67	0.48	1.21	0.47	10.35	1
25	해외우수 프로그램과 연계방안 모색 및 안내	3.86	0.85	0.47	-0.47	22.13	2
26	현장 교사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4.67	0.58	1.11	0.58	12.37	1
27	현장에서 만들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교구 개발	4.57	0.75	0.89	0.58	16.33	1
28	교재교구 대여 택배 및 배달 서비스 지원	3.90	1.14	0.37	-0.05	29.09	
29	멀티미디어 및 ICT를 활용한 교재교구 제작 지원 인력 확충	4.24	0.70	0.89	-0.16	16.52	2
30	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교육자료 공유를 위한 웹 사이트 구축	4.48	0.87	0.89	0.47	19.50	1
	평균	4.34	0.77	0.83	0.20	18.04	

4. ‘유치원 교원연수’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유치원 교원연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치원 교원연수’에는 14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인 정책우선순위 항목은 유치원교원연수 41(교원연수의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강사인력풀 확보)($M=4.76$), 유치원교원연수 32(교사의 학급중심 실천 연구과정 지원 및 공유)($M=4.67$), 유치원교원연수 42(전문성 수준에 따른 연수유형의 다양화)($M=4.67$), 유치원교원연수 37(수업사례 중심의 현장 토의형 연수 강화)($M=4.57$)이었다. 한편, 정책 2순위 그룹인 정책차순위 항목은 유치원교원연수 31(지역별 현직교사의 수요조사기반 교원연수 제공)($M=4.52$), 유치원교원연수 43(교원이 즐길 수 있는 인문학적, 예술적 감성함양 연수 확대)($M=4.48$), 유치원교원연수 38(생애주기별 연수 횟수 확대)($M=4.33$), 유치원교원연수 40(교육지원청, 구청, 주민센터, 거점 유치원과 협력하여 지역별 교원연수 실시)($M=4.33$), 유치원교원연수 35(찾아가는 교원연수 강화)($M=4.19$), 유치원교원연수 39(인권, 성폭력, 아동학대, 청렴 등 필수 연수 확대)($M=4.19$), 유치원교원연수 36(교육부 지정 원격 연수원 지정)($M=4.10$), 유치원교원연수 44(직무시간, 평일 저녁, 토요일 등 다양한 연수시간대 구성)($M=4.00$)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후순위 항목은 유치원교원연수 33(온라인, 사이버 연수 질 제고 및 확대)($M=4.00$), 유치원교원연수 34(보조인력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M=3.67$)이었다.

〈표 6〉 유치원 교원연수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31	지역별 현직교사의 수요조사기반 교원연수 제공	4.52	0.60	1.11	0.26	13.30	2
32	교사의 학급중심 실천 연구과정 지원 및 공유	4.67	0.58	1.11	0.58	12.37	1
33	온라인, 사이버 연수 제고 및 확대	4.00	1.00	0.37	-0.05	25.00	
34	보조인력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3.67	0.86	0.16	-0.58	23.35	
35	찾아가는 교원연수 강화	4.19	0.81	0.89	-0.16	19.41	2
36	교육부 지정 원격 연수원 지정	4.10	0.77	0.68	-0.26	18.76	2
37	수업사례 중심의 현장 토의형 연수 강화	4.57	0.68	1.00	0.47	14.79	1
38	생애주기별 연수 횟수 확대	4.33	0.73	0.89	0.05	16.85	2
39	인권, 성폭력, 아동학대, 청렴 등 필수 연수 확대	4.19	0.81	0.68	-0.05	19.41	2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40	교육지원청, 구청, 주민센터, 거점 유치원과 협력, 지역별 교원연수 실시	4.33	0.86	0.89	0.16	19.76	2
41	교원연수의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강사인력풀 확보	4.76	0.54	1.11	0.79	11.32	1
42	전문성 수준에 따른 연수유형의 다양화	4.67	0.48	1.21	0.47	10.35	1
43	교원이 즐길 수 있는 인문학적, 예술적 감성함양 연수 확대	4.48	0.51	1.21	0.05	11.43	2
44	직무시간, 평일 저녁, 토요일 등 다양한 연수시간대 구성	4.00	0.89	0.58	-0.26	22.36	2
평균		4.32	0.72	0.85	0.11	17.03	

5. ‘유치원 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유치원 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치원 평가’에는 7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인 정책우선순위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 2순위 그룹인 정책차순위 항목은 유치원 평가 46(평가 부적합 유치원만 컨설팅, 우수 유치원은 기관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역량 강화방향으로의 개선)($M=4.38$), 유치원 평가 48(유치원 평가를 위한 교원, 평가위원 사전연수 강화)($M=4.19$), 유치원 평가 45(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평가업무이관)($M=4.00$)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후순위 항목은 유치원 평가 47(현장평가 지양, 서면, 자체평가보고 강화)($M=3.95$)이었다.

〈표 7〉 유치원 평가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4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평가업무이관	4.00	1.14	0.47	0.05	28.50	2
46	평가 부적합 유치원만 컨설팅, 우수 유치원은 역량 강화	4.38	0.80	1.00	0.16	18.37	2
47	현장평가 지양, 서면, 자체평가보고 강화	3.95	0.97	0.37	-0.16	24.63	
48	유치원 평가를 위한 교원, 평가위원 사전연수 강화	4.19	0.75	0.79	-0.16	17.89	2
평균		4.13	0.92	0.66	-0.03	22.35	

6.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에는 14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인 정책우선순위 항목은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49(노후된 체험영역 리모델링 및 예산 확대)($M=4.71$),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60(유아체험내용 주기적 교체 및 신설 운영 강조)($M=4.62$)이었다. 한편, 정책 2순위 그룹인 정책차순위 항목은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1(흥미영역 위주가 아닌 창의적인 놀이 부스 확대)($M=4.62$),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2(다양한 공연관람 및 예술문화체험 확대)($M=4.38$),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3(실외놀이 체험 놀이터 확대)($M=4.38$),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0(마을의 특색이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M=4.33$),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5(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M=4.33$),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8(교원 요구조사를 반영한 체험활동 종류 확대)($M=4.29$),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6(자원봉사자 인력 확충 확대)($M=4.14$),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7(가정과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 마련)($M=4.10$),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9(과학실험 및 ICT 기술 보강)($M=4.05$),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61(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확대)($M=4.05$),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54(타 진흥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M=4.00$),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62(체험 프로그램 직접 운영보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계하도록 MOU 체결)($M=4.00$)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후순위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8〉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49	노후된 체험영역 리모델링 및 예산 확대	4.71	0.46	1.21	0.58	9.82	1
50	마을의 특색이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33	0.80	1.00	0.05	18.37	2
51	흥미영역 위주가 아닌 창의적인 놀이 부스 확대	4.62	0.50	1.21	0.37	10.77	2
52	다양한 공연관람 및 예술문화체험 확대	4.38	0.80	0.79	0.26	18.37	2
53	실외놀이 체험 놀이터 확대	4.38	0.80	1.00	0.16	18.37	2
54	타 진흥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4.00	0.77	0.58	-0.37	19.37	2
55	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4.33	0.80	0.79	0.16	18.37	2
56	자원봉사자 인력 확충 확대	4.14	0.79	0.68	-0.16	19.14	2
57	가정과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 마련	4.10	0.70	0.79	-0.37	17.10	2
58	교원 요구조사를 반영한 체험활동 종류 확대	4.29	0.72	0.89	-0.05	16.73	2
59	과학실험 및 ICT 기술 보강	4.05	0.67	0.79	-0.47	16.53	2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60	유아체험내용 주기적 교체 및 신설 운영 강조	4.62	0.67	1.00	0.58	14.48	1
61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확대	4.05	0.86	0.68	-0.26	21.36	2
62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계하도록 MOU 체결	4.00	1.00	0.58	-0.16	25.00	2
	평균	4.29	0.74	0.86	0.02	17.42	

7.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에는 12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인 정책우선순위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 2순위 그룹인 정책차순위 항목은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64(유치원과 지역청이 담당하기 어려운 유아 부모 상담지원)($M=4.43$),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73(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및 상담지원서비스)($M=4.43$),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74(다양한 가족을 위한 연수 및 지원 기능 강화)($M=4.43$),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66(대국민 홍보 전략 강화)($M=4.38$),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70(유치원 입학예정 부모 대상 유치원 이해, 학부모 에티켓 연수 개발)($M=4.38$),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71(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지원 프로그램 운영)($M=4.24$),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63(자녀의 행복을 위한 학부모 콘서트 개최)($M=4.19$),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67(자녀발달 시기에 맞춘 연수의 세분화)($M=4.19$),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69(소통경로 및 시간대 다양화)($M=4.19$),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72(유치원에서 원장과 교사가 진행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 콘텐츠 개발)($M=4.14$),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68(부모의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연수 확대)($M=4.05$)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후순위는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65(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원 강화)($M=2.95$)였다.

〈표 9〉 학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63	자녀의 행복을 위한 학부모 콘서트 개최	4.19	0.75	0.79	-0.16	17.89	2
64	유치원과 지역청이 담당하기 어려운 유아부모 상담지원	4.43	0.81	1.00	0.26	18.30	2
65	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원 강화	2.95	1.02	-0.58	-0.79	34.67	
66	대국민 홍보 전략 강화	4.38	0.80	0.79	0.26	18.37	2
67	자녀발달 시기에 맞춘 연수의 세분화	4.19	0.98	0.58	0.16	23.40	2
68	부모의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연수 확대	4.05	0.86	0.47	-0.16	21.36	2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69	소통 경로 및 시간대 다양화	4.19	0.98	0.58	0.16	23.40	2
70	유치원 입학예정 부모 대상 유치원 이해, 학부모 에티켓 연수 개발	4.38	0.74	0.89	0.16	16.89	2
71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지원 프로그램 운영	4.24	0.77	0.79	-0.05	18.13	2
72	유치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4.14	0.91	0.68	-0.05	21.97	2
73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및 상담지원서비스	4.43	0.75	0.89	0.26	16.85	2
74	다양한 가족을 위한 연수 및 지원 기능 강화	4.43	0.68	1.00	0.16	15.27	2
평균		4.17	0.84	0.66	0.02	20.54	

8. ‘교육복지’에 대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해 ‘교육복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복지’에는 6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책 1순위 그룹인 정책우선순위 항목은 교육복지 75(사회적 배려대상 가족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M=4.57$))이었다. 한편, 정책 2순위 그룹인 정책차순위 항목은 교육복지 76(사회적 배려대상 부모교육 상담실 운영)($M=4.48$), 교육복지 79(장애유아를 위한 환경구비 강화)($M=4.33$), 교육복지 80(다문화 가족 상담지원 확대)($M=4.33$), 교육복지 77(사회적 배려대상 유아와 가족들의 지역 문화 시설 이용권 제공)($M=4.10$))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후순위 항목은 교육복지 78(영역별 체험교육시 사회적 배려자 고정비율 적용)($M=3.76$))이었다.

〈표 10〉 교육복지

문항	항목	평균	표준편차	CVR1	CVR2	CV	순위
75	사회적 배려대상 가족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4.57	0.68	1.00	0.47	14.79	1
76	사회적 배려대상 부모교육 상담실 운영	4.48	0.68	1.00	0.26	15.18	2
77	사회적 배려대상 유아와 가족들의 지역 문화시설 이용권 제공	4.10	1.00	0.47	0.05	24.30	2
78	영역별 체험교육시 사회적 배려자 고정비율 적용	3.76	0.89	0.26	-0.47	23.63	
79	장애유아를 위한 환경구비 강화	4.33	0.73	0.89	0.05	16.85	2
80	다문화 가족 상담지원 확대	4.33	0.73	0.89	0.05	16.85	2
평균		4.26	0.79	0.75	0.07	18.6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정책 순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8개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순위에 관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적 시급성과 중·장기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먼저 정책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에서 선정된 정책우선순위 항목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기능강화’, ‘지역별 유치원 현장지원기능 강화’, ‘안정적 예산 확보’, ‘전국 유아교육진흥원간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기능 강화’,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법적근거마련’, ‘진흥원 조직정비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대’, ‘인력 확대 및 인력 전문성 강화’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상의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인력, 예산, 조직, 전달체계에 대한 요청이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는 김은영과 최은영, 조혜주(2011), 권미경과 김문정(2012), 최은영과 이진화, 오유정(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 확대 정책은 2011년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의 5대 과제 중 하나였다(김은영·최은영·조혜주, 2011). 지난 10년간 진흥원은 2011년 8개였다가 2014년 14개로 늘었으며, 전체 유치원 취원아 53.6%가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에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현재 진흥원이 보다 늘고 있는 있으나, 시군구별 유치원들을 지원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예산 확대 없이는 이상의 정책우선순위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예산확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2008년 개원 이후 학부모 교육원(2009년), 서울 학부모 지역거점센터 설치(2011년) 등 학부모교육에 관한 지원을 늘리고, 2012년 유아체험교육까지 포함하면서 설립 목적과 업무를 넓혀왔다(박창현·김근진·최윤경, 2018).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진흥원의 예산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약 48억에서 2015년 18억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2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박창현·김근진·최윤경, 2018). 정책우선순위에서 안정적 예산 확보나, 네트워크 및 플랫폼 기능을 강화, 인력확대 등을 실현하기에도 예산 확대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력확충이 필수적일 수 있다. 예컨대,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는 부서와 유아교육정보를 시민에게 온·오프로 제공할 수 있는 부서 등이 보다 추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배치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들간 네트워크 연결기능을 할 수 있는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은 이미 최은영과 이진화, 오유정(2014)의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은 진흥원 간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시키고, 정책과 연구기능을 통해 유치원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의 의미가 크다.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여 ‘(가칭)국립유아교육진흥원’으로 승격시키고, 시도별 유아교육진흥원을 거점화하여 시군구별 단위 유치원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유아교육법 제 6조(유아교육진흥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중앙유아교육진흥원(가칭 국립유아교육진흥원)을,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 영역에서는 정책우선순위가 없었으며, 대부분 정책차순위였다. 차순위 정책들은 주로 서울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나 마을공동체, 지역을 강조한 정책들이었다. 차순위 정책은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정해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진흥원의 기본 인프라 구축(예산, 인력, 지원 및 전달체계 확보)이 보다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영역의 경우, ‘진흥원 우수교재 및 프로그램의 시중 접근성 확대 및 보급 문제 개선’, ‘현장 교사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교육자료 공유를 위한 웹 사이트 구축’이 정책우선순위였다.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문복진(2014), 권연정(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료 공유를 위한 웹 사이트 구축’이 정책우선순위로 나타났는데, 진흥원의 질 높은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들을 웹에서 교사 및 일반인들에게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중, 유아교육에 관한 가장 많은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음에도(정세문, 2015), 시민들은 진흥원의 우수교재들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세를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시민 접근성의 문제는 보다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치원 교원연수’의 경우, ‘교사의 학급중심 실천연구과정 지원 및 공유’, ‘수업사례 중심의 현장 토의형 연수 강화’, ‘교원연수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강사 인력풀 확보’, ‘전문성 수준에 따른 연수유형 다양화’였으며, ‘유치원 평가’ 영역에서는 정책우선순위가

없었다. ‘유치원 교원연수’의 경우, 학급과 수업 중심, 현장중심의 연수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준별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교원연수의 강사의 질 제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평가 항목에서 정책우선순위가 없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2018년 이전까지는 유치원 평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의 유치원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치원 평가 업무는 정책우선순위 정책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노후된 체험영역 리모델링 및 예산 확대’, ‘유아체험내용 주기적 교체 및 신설 운영’이 정책우선순위였고,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서는 정책우선순위가 없었다. 특히 ‘체험영역의 리모델링 및 체험내용의 주기적 교체’는 예산과도 맞물리며, 진흥원의 질 제고와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2008년 설립 이후 10년간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이제는 시설과 설비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가족체험, 단체영역체험, 문화예술체험, 과학가족특별체험, 어린이날 행사, 민속가족특별체험 등의 여전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9). 또한 2017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한 유아들은 약 7만 9천명으로 서울지역의 유아들 중 약 89%가 진흥원을 이용한 바 있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평균 98%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박창현·김근진·최윤경, 2018). 이런 측면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시설들을 실험 및 놀이중심으로 누리과정 개편의 취지에 알맞게 리모델링하고, 유아들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교육복지’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 가족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정책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을 찾아가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모자 보건 및 미취학 영유아의 학업준비 및 성적향상, 지역사회 체계 내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정책적인 효과(김주미, 2017)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제언은 의미있는 제안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책차순위와 후순위 항목들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차순위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추후 보다 중요하게 제안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이다. 첫째, ‘유아교육진흥원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놀이, 학부모 지역사회 소통기능이 강화된 지역별 유아교육지원센터(가칭)로 개편’,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적 특색강화’, ‘유아교육진흥원 명칭 변경’, ‘공무원의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추후 유보통합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기능 강화’, ‘교

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진흥원 체제로 연구 및 연수 업무를 부담하여 업무의 효율성 강화'가 정책차순위로 나타났다. 주로 진흥원의 명칭변경과 지역적 특색반영, 지역사회 유사 기관과의 연계, 유사기관과의 업무 분담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은영과 이진화, 김승진(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데, 이들은 유-보 통합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의 통합 지원체계로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교원연수는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및 교육연수원으로 이관', '유아체험은 마을 중심의 실제체험을 강조하고, 진흥원은 마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문지기 역할 강화', '기존 체험원은 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키즈카페, 가족 프로그램이 통합된 종합시설로 개편', '유치원 임시돌봄 기능 추가'는 정책후순위였다. 이상의 문항들은 전문가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의견이 일관되게 수렴되지 않았다.

둘째,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영역에서는 '서울시민대상 유아교육정보제공 주력',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오픈 플랫폼 마련',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 유아교육지원기관 등 마을 공동체 인력, 서비스 기관 등에 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서울시내 유치원 홈페이지 배너 연결을 통해 진흥원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 확대', '4차 산업혁명, ICT 교육, 창의적 교수법 등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 유아교육의 중장기 정책 연구필요'가 정책차순위였다. 이상의 항목들은 추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들이며, 주로 개방성과 접근성, 참여성과 같은 유아교육 연구와 정보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들로 정리된다.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정책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하고 공유하여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다 변화될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반면,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정책 연구 주력'은 정책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큰 항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자치와 분권이 중요해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현재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누리과정 개정하여 자유놀이를 강조한 자율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듯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들도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영역의 경우, '해외우수프로그램과 서울형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방안 모색 및 안내', '멀티미디어 ICT를 활용한 교재교구 제작지원 인력 확충(가상 및 증강현실도구 등)'이 정책차순위였다. 반면, '교재교구 대여 택배 및 배달서비스 지원'은 정책후순위였다. 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흥원 사업에서 교재교구 대여 및 택배 및 배달 서비스는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이제는 유치원들이 플로터나 행사에 필요한 무대

의상, 교재교구 등을 진흥원에서 빌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이상의 사업들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정책후순위인 이유를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유치원 교원연수’의 경우, ‘지역별 현직 교사의 수요조사기반 교원연수 제공’, ‘찾아가는 교원연수 강화’, ‘교육부 지정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원격 연수원 지정’, ‘생애주기별 연수 횟수 확대’, ‘인권, 성폭력, 아동학대, 청렴 등 필수 연수 확대’, ‘연수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청, 구청, 주민센터, 거점 유치원과 협력하여 지역별 교육연수 실시’, ‘교원이 즐길 수 있는 인문학적, 예술적 감성함양연수 확대’, ‘직무시간, 평일 저녁, 토요일 등 다양한 연수시간대 구성’이 정책차순위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교원연수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는데, 특히 지난 10년간 ‘생애주기별 연수’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90% 이상)(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8).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생애주기별 연수 횟수를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일관되게 수렴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창현과 김근진, 최윤경(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진흥원의 교원연수에 대한 결과보고를 살펴보면,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생애주기별 연수’와 ‘사이버 교원연수’가 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지원연수 등을 강화하고, 연수의 유형을 보다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사이버 연수 질 제고 및 확대’, ‘보조인력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정책후순위였다. 우선 온라인 사이버 연수의 경우, 이상의 연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사이버 교원연수의 만족도가 이미 높았다는 점을 볼 때, 사이버 연수의 질 제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책의 필요도가 높지 않아 후순위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최근 온라인 사이버 연수보다 현장·학급 중심 연수들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 대량 연수들이 지양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아울러 ‘보조인력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후순위가 된 이유는 보조인력 대상 연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하더라도 당장은 시급한 항목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유치원 평가’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평가업무이관’, ‘평가부적합 유치원만 컨설팅, 우수 유치원은 기관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역량 강화 방향으로 개선’, ‘유치원 평가를 위한 교원, 평가위원 사전연수 강화’가 정책차순위였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가 진행될 무렵, 유치원 평가업무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전문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치원 평가업무를 교육연구정보원 등의 타기관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애초 유치원 평가업무에 대해서 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장은 아니지만 차순위 정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평가 부적

합 유치원만 컨설팅 하거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평가위원의 연수를 강화하여 유치원 평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평가를 지양하거나, 자체 및 서면평가 보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의 경우, ‘마을특색이 살아있는 체험프로그램 강화’, ‘흥미영역 위주가 아닌, 창의적인 놀이부스 확대’, ‘다양한 공연 관람 및 예술문화체험 확대’, ‘실외놀이 체험놀이터 확대’, ‘타 진흥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인력 확충 확대’, ‘가정과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 마련’, ‘교원 요구조사를 반영한 체험활동 종류 확대’, ‘과학실험 및 ICT 기술 보강’,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확대’, ‘체험 프로그램 직접운영보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계하도록 MOU 체결’이 정책차순위였다. 전문가들은 주로 찾아가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추후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학부모교육 및 정보 제공’의 경우, ‘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원 강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2순위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항목들은 거의 차순위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보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연구결과이다.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 영역의 하위 항목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학부모 콘서트 개최’, ‘대국민 홍보전략 강화’, ‘부모정서 함양을 위한 힐링연수 확대’ 등이었다. 박창현, 김근진, 최윤경(2018)의 연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따른 성과 및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학부모 교육의 적절성’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을 정책우선순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들이 차순위 정책들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하위 내용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내용과 정보를 제공할지는 추후 심층적인 논의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교육복지’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 부모교육상담실 운영’, ‘사회적배려대상 유아와 가족들의 지역문화시설 이용권 제공’, ‘장애유아를 위한 환경구비 강화’, ‘다문화 가족 상담지원 확대’가 정책차순위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추후 보다 중요해질 수는 있다는 점을 볼 때, 제고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반면 ‘영역별 체험교육시 사회적 배려자 고정비율 적용’은 정책순위가 아니었다. 실제로 사회적배려대상자 고정비율 적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연구진이 판단하기에도 다소 인위적인 느낌을 준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영역별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누리과정의 통합교육의 원리에도 알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점에 기반하여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한 것이므로, 16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정책은 아니다. 추후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진흥원 발전방안이 다양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전문가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근무했거나, 이에 대한 이해가 큰 교육직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해의 수준이 높을 수 있으나 다소 보수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학부모, 교사, 일반인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민지(2017). 정부개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과 활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경·김문정(2012a).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2-2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김문정(2012b).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 및 지원 방안. 이슈페이퍼 2012-07,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연정(2016). 유아교사를 위한 액션러닝 기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숙·임부연(2014). 이야기나누기 수업에서 신체화된 교육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8(4), 307-332.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1-2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주미(2017).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외사례: 영유아가정을 중심으로. 젠더브리프(2017. 6.14 일자). 서울여성가족재단. http://www.seoulwomen.or.kr/idata/upload/newsLetter/2017/letter_20170614/file/genderBrief_20170614.pdf. 2019년 12월 1일 인출.
- 김태인·김혜원(2010). 유아교육 기관 내에서의 상담 자원과 관련된 요구. 육아정책연구, 4(1), 63-78.
- 김태인·조형숙(2010). 부모·아동상담교육 및 외부지원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과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14(5), 417-442.
- 맹윤희(2011).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현직교육 실태조사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복진(2014).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모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규수·박미정(2016). 교원능력개발평가체제에 따른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1(5), 1-30.
- 박창현·김근진·최윤경(2018).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17). 2017년 운영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18). 교원연수 결과 및 만족도 조사 자료. 내부자료.
- 안혜진(2012). 국가수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강사의 인식 및 수업의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승·강민정·조혜진(2012). R-러닝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32(2), 167-1.
- 이혜정·이인희·이지혜(2015). 유아교육진흥원 역할과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견해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0), 6743-6750.
- 정세문(2015).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영유아 관련 교육연구사업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2015).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3-2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4-2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5-2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참고 사이트〉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2019). <http://seoul-i.sen.go.kr/FUS/CV/MI0000000000000119.do>에서 2019년 12월 20일 인출함.

- 논문접수 11월 12일 / 수정본 접수 12월 5일 / 게재 승인 12월 17일
- 교신저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pch0407@kicce.re.kr

Abstract

A Policy Priority Analysis on the Advanced Plan of Seoul Early Childhood Education & Promotion Center Based on an Expert Delphi Survey

Changhyun Park and Keun J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priorities of the advanced plan of Seoul Early Childhood Education & Promotion Center(Seoul ECEPC) based on an expert Delphi surveys,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future promotion center.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20 days from May 1st to May 20th, 2018. 22 experts presented their opinions on the development plan in the survey. Variable factor and content feasibility ratio were derived for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olicy priority was to strengthen the delivery system and network functions. Secondary priorities included parents, community, Seoul citizens, communication, openness, play, art, healing etc. The last priorities were related to care, self-assessment, online training etc.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Key words: policy priority, Seoul Early Childhood Education & Promotion Center(Seoul ECEPC), expert delphi survey